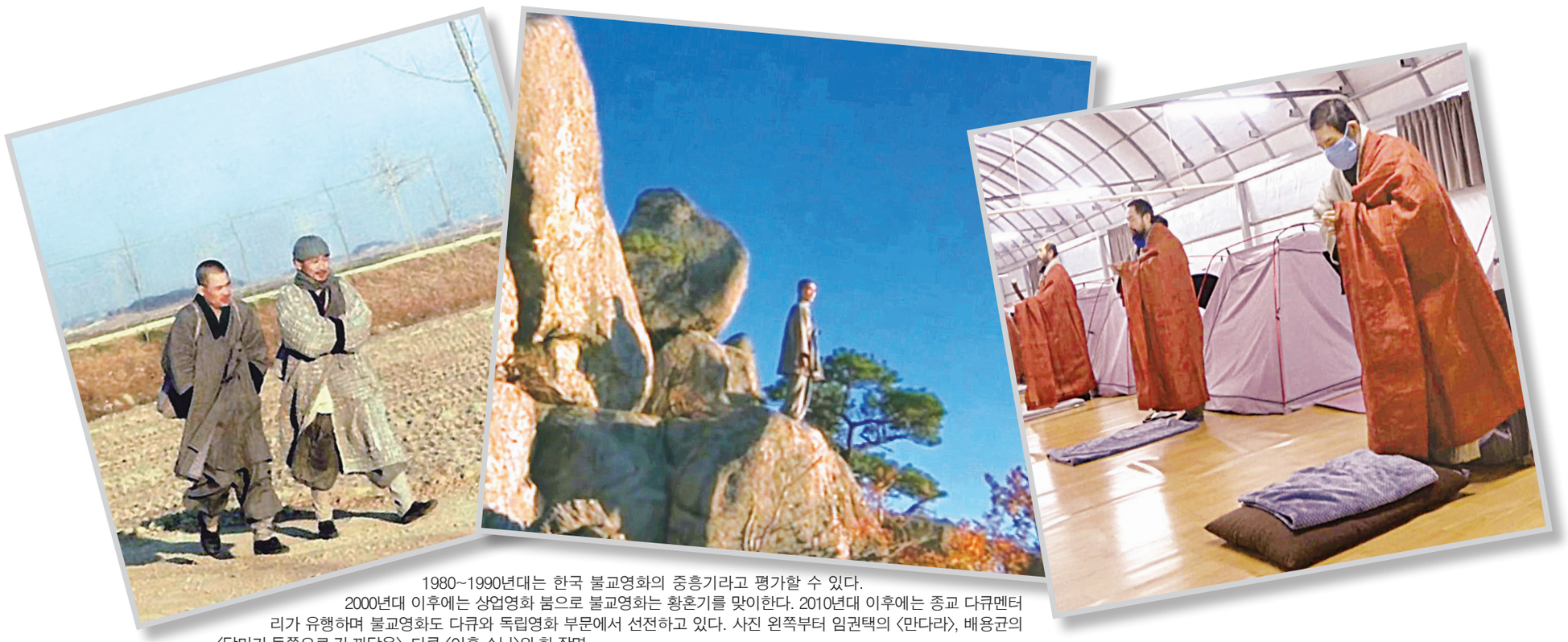
다시보는
불모지

❻ 한국불교영화 1980~2020



1980~1990년대는 한국 불교영화의 중흥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상업영화 붐으로 불교영화는 황혼기를 맞이한다. 2010년대 이후에는 종교 다큐멘터리가 유행하며 불교영화도 다큐와 독립영화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권택의 〈만다라〉, 배용균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다큐 〈아홉 스님〉의 한 장면.

韓영화 이끈 불교영화, 다시 '기지개'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의 신성민입니다.

지난번에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불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불교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韓불교영화의 르네상스

1980년대는 불교영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영화를 통해 임권택 감독이라는 거장이 탄생했고,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담보한 영화 작품이 잇달아 제작됐습니다.

불교영화가 대종상 · 영평상 등 국내 영화상은 물론 해외영화제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는 문학에서 구도소설이 인기를 끌며, 영화로 확장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아제아제바라아제(1989)〉,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김양득 감독의 〈우담바라(1989)〉입니다.

〈만다라〉는 김성동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본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영화 속 열린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 "10.27법난 이후 황폐해진 한국불교의 만성적인 무력감으로부터 하나의 위안과 각성을 암시해준 작품"이라며 "승속 갈등 가운데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아제아제바라아제〉는 한승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이 작품은 순녀(강수연 분)라는 속퇴한 비구니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기능을 살피고 있는 수작입니다. 이 영화로 임권택은 불교영화 감독으로 면목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불교영화 중 가장 베스트로 뽑는 작품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한국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실제 이 작품은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죠.

정작 배용균 감독 본인은 불교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적 소재를 삼고 있고 그 안에는 선적 사유체계가 수준 높은 영상 이미지로 함축돼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불교영화는 점차 축소됐지만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예술 영화들의 명맥은 이어갔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불교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불교적' 혹은 '불교적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1990년대입니다.

이 시기 불교영화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1991)〉,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1993)〉, 양윤호 감독의 〈유리(1996)〉 등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는 비구승 심해와 비구니 묘연의 이야기로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겪게 되는 인간적 번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불교 영화지만 금지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화엄경〉은 고은 시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장선우 감독이 영화적 문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유리〉는 박상륭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작가주의적인 착안을 통해 한국영화의 한 전형을 창조하려 했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았죠.

1980 · 90년대 들어 韓불교영화 중흥기 도래
임권택 등 거장 탄생…구도소설 잇단 영화화
2000년대 상업영화 안착하며 불교영화 쇠퇴
종교 다큐 영화 유행…독립 · 다큐서 '재도약'

상업 영화 유행, 불교영화 황혼기

2000년대 불교영화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국의 영화계가 오락 영화로 노선을 완전히 정리했고 그러다 보니 불교는 더 이상은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게 됐죠. 그런 와중에도 몇몇 작품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 김성수 감독의 〈무사〉는 지산 스님의 삶과 의지를 통해 고려사의 흥망성쇠를 같이 한 불교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는 불교와 상업영화가 성공적으로 만난 작품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조폭 코미디' 장르가 만나 '불법(不法)을 불법(佛法)으로 교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흥행에도 성공해 서울 관객 125만, 전국 377만 관객 동원으로 2001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편인 〈달마야 서울가자〉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 김기덕 감독이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을 제작해 발표했는데요. 처음에는 불교영화로 소개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외피만 불교고, 그 안에 코드는 기독교라는 평론들이 잇달아 나왔죠. 제가 보기에도 불교영화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분야 다큐멘터리가 유행하면서 불교영화는 독립 · 다큐 영화 부문에서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습니다.

2010년 개봉한 윤용진 감독의 〈할〉은 보육원에서 형제같이 자라나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려한 영상미가 돋보이기는 하나 너무 파편적이고 난해해 관객들의 평은 호불호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제작 · 발표된 〈법정 스님의 의자(2011, 임상구 감독)〉는 어린 시절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모든 일생이 담긴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이창재 감독의 〈길 위에서〉가 개봉했죠. 불교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었던 작품으로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잔잔한 영상으로 그려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 천막 동안거 정진을 한 아홉 스님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아홉 스님〉은 지난해에 개봉했죠.

아홉 스님의 치열한 정진에 대한 영상 기록과 참여 스님들의 인터뷰를 담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